



## 체육계열학과 학부교육에서 이론과 실기

김홍식\*

### Theoretical and Practical Dimensions of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Kim, Hong-Sik

#### 요약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육계열학과 학부교육을 이론과 실기의 맥락에서 검토해본 것이다. 체육계열학과는 1950년 이래 학교체육, 사회체육, 레저스포츠 등의 영역을 확장해 왔는데, 동시에 이론과 실기의 영역 모두에서 근본적 문제를 누적해 왔다. 첫째, 이론 영역에서 전문직무, 경기종목 특화의 추구에 따라 새로운 교과목이 다수 등장한다. 이는 체육학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지지하는, 문리학문에 바탕을 둔 기초 교과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압력을 가한다. 둘째, 실기 영역에서 운동경기 수행능력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전문직무 수행역량을 기르는 실습의 의미 및 요구를 충실하게 담보하지 못한다. 즉 체육계열학과 학부교육은 이론 교과목의 과중함과 실습 교과목의 부족함으로 대별되는 양상이다.

※ 주제어 : 체육학, 체육교육, 고등교육, 이론, 실기

####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undergraduate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 (KPE) program in South Korea, which focuses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dimensions. Since 1950, KPE in higher education has expanded in areas such as school, community, and leisure sports, but the program has been facing fundamental problems in the curriculum. First, in the theoretical dimension, several new subjects emerge as vocational jobs and sports specialization. Emerging new subjects reduces and abolish basic subjects that supports kinesiology's identity and unity. Second, the practical dimension, most programs over-focus on sports skills, which causes a deficient of practical education.

※ Key words : kinesiology, physical education, higher education, theory, practice

\* 단독저자,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hskim@knsu.ac.kr](mailto:hskim@knsu.ac.kr)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Dept. of Youth Guidance and Sport Education, Professor

## I. 문제와 시선

체육(exercise & sport)을 통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은 교육을 통해 구현되며 체육에 관한 교육은 초등과 중등의 보통교육, 고등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체육을 통해 널리 이롭게 함은 그 교육의 성패에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체육에 관한 교육의 담당자가 성과를 제고하는 성찰과 개선의 노력에 부단히 경주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고등 체육교육(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그 중에서도 전공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의 체육교육을 이끄는 교육자, 관리자, 연구자를 양성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성찰,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sup>1)</sup>

우리의 대학체육교육에서 이론과 실기의 역할 즉 교육의 구성 및 운영을 다룬 논의는 그 역사에 상응하여 꾸준했다. 전공과 교양 체육을 포괄하여 논하거나(김오중, 1956; 선병기, 1956), 전공체육 혹은 대학체육(계열)학과의 교육에 집중하여 논하거나(강신복, 1994) 교양체육에 한정하여 논하는 사례는 상당하다. 체육학회장을 역임하고 대학체육 교육을 이끈 김오중 교수, 선병기 교수의 논의로 확인되듯이 광복 이래 대학체육, 특히 체육(학)과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때부터 정체 확립 및 발전 모색은 상시의 논제이자 과제였다. 특히 전공체육에서 전문성의 강화, 이론과 실기의 조화 배분 등은 반복된 결론이다. 이는 강신복 교수의 1994년 논의 사례에서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전공체육의 외연은 대략 2000년 전후까지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광복 직후 1945년부터 1960년대의 사범 계열 체육과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의 체육학과, 1990년대의 사회체육학과 혹은 생활체육학과, 2000년대의 레저스포츠학과 그리고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의학과 등의 신설 확산이 이어졌다. 학과의 연관 및 진로 분야가 학교체육, 사회(생활)체육, 레저스포츠(여가체육) 그리고 스포츠 산업이나 의학 등으로 연계 확장된 것이다. 외형상 새로운 학과와 영역의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지향 직무의 대강이 교육(teaching)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지도(instructing)라는 점에서 내용상 변화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대학 전공체육의 발전 논의는 교수의 충원, 시설의 확충 등과 같이 빠른 외형 확장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집중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공통 혹은 중핵 교과목의 설정, 이론과 실기의 성격 및 역할과 같은 사항은 주된 논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다음과 같이 시선을 집중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학 전공체육의 외형 위축이다. ‘교육통계서비스’의 대학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대학과정과 전문대학과정 체육계열의 학과 수(계열별 분류가 어려운 대학과정의 교육/예체능 계열은 제외)는 대학과정과 전문대학과정의 전체 학과 수는 680개에서 578개로 102개가 감소하였고, 제적학생 수는 86,481명에서 69,037명으로 17,444명 감소하였다. 이는 2021년의 규모가 2011년 대비 학과 수는 17.6%, 학생 수는 20.1%

1) 여기서 이 글의 배경과 동기를 밝혀야겠다. 이 글은 한국체육학회가 2020년 10월 22일과 23일에 “한국체육학 75년 한국체육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58회 학술대회의 세션Ⅱ “교육으로서의 체육학의 미래 역할”에서 “대학체육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한국체육학회가 “대학체육 교육”에 관해 발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했다. 미국 National Association for Kinesiology in Higher Education(NAKHE)에서 1963년 (당시의 NAPEHE에서) 창간한 QUEST를 통해 대학체육 교육(kinesiology & physic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의 개선 논의를 이어나온 바에 비해 한국체육학회를 비롯한 학계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듯하여 늘 아쉬웠기 때문이다.

한국체육학회 차광석 전회장이 제안한 “대학체육 교육”은 대학의 전공체육(교육)과 교양체육(교육)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론과 실기”는 대학체육 교육의 내용을 대별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거의 같다. 그러나 이 글에서 교양체육은 논외로 한다. 교양체육을 제대로 다루려면 현대 대학의 역사 및 정체와 밀접한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 기초교육(general education), 핵심역량(core competency)교육 등의 이념 및 전개, 이를 관류하는 지식 내재주의와 공익 실용주의 간의 대립, 우리대학과 외국대학의 역사 문화적 동이(同異), 우리의 당면 문제인 대학평가 및 구조조정의 실상 등(김경동, 1983; 정종원·유기웅, 2015; 이성호, 2016;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6)을 아우르면서 대학체육교육의 목적적, 내용적, 방법적 정당성을 넓고 깊게 통찰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논의의 공간과 논자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다음의 기회를 기대해 본다. 하여 이 글은 대학 전공체육교육에 한정하였다.

가 줄어든 것이다. 한편 'e-나라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고등교육의 학생 수는 2010년 대학과정 2,154,195명과 전문대학과정 767,087명에서 2020년 대학과정 2,012,015명과 전문대학과정 621,772명으로 대학과정은 142,180명, 전문대학과정은 145,315명이 감소하여 2020년의 학생 수는 2010년에 대비하여 각각 6.6%, 18.9% 감소를 보여준다.

이처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체육계열학과의 학생 수는 타 계열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과거 20년 동안 체육계열학과의 학생 수는 거의 두 배 증가한 데(김홍식·민현주, 2010: 2) 비해 타 계열은 대부분 정체하거나 미소하게 감소하던 경향을 더하면 최근의 체육계열학과 학생 수 감소는 가장 현저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급격 반전의 추세는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대학의 운영 부담 가중 및 구조 조정 압력의 영향 결과이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체육계열학과의 지속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새로운 직무영역, 전문자격이 등장하고 이를 주된 취업 진로로 삼는 학과들도 신설되고 있다. 국가 행정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자격에 한정하면 우선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가 등장한 지 열다섯 해가 넘어간다. 또한 운동처방사 자격 및 연수의 개발, ACSM Korea workshop 등이 있었던 1990년대 중반 이래 체육 분야의 숙원이었던 운동처방 혹은 스포츠의학 관련 전문자격이 건강운동관리사라는 명칭으로 2015년 제도권에 자리하게 되었다. AT, PT 등처럼 오래전 체육 분야의 중심 직무로 확립된 선진 외국에 비교하면 만사지탄이 아닐 수 없으나 현저한 변화임은 분명하다.

셋째, 참여대상을 특화한 체육지도직무 및 관련 학과들이 늘고 있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연령이나 특성 대상에 집중하는 스포츠 지도직무 국가자격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취업 진로로 삼은 학과 혹은 전공이 신설되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직무자격제도의 등장은 대학구조조정의 부담 속에서 변신을 통해 존속을 시도하는 학과들이 추구하는 직무를 국가자격제도에 안착시켜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넷째, 운동(경기) 종목을 특화한 학과들이 증설되어 왔다. 무도학과를 넘어 유도학과, 태권도학과 그리고 골프학과, 축구학과 등등이다. 해당 종목들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대중적, 전문적 참여 역시 상당하여 지도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은 기존 체육계열학과와는 궤를 달리하는 모습이다. 이들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전통적 전공체육 교과목의 명칭에 포함된 체육이나 스포츠는 해당 종목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무도(태권도)사, 무도(태권도)철학, 무도(태권도)심리학 등등이 그렇다.

이렇듯 체육계열학과의 근래 상황은 과거의 변화와 내용상 큰 차이가 있다. 과거의 상황은 교육/지도 직무의 동질 확장이었지만 근래의 상황은 개입/관리 직무의 이질 확장이다. 다시 말해서 건강운동관리, 스포츠경영 관련 자격 및 학과의 등장은 직무 특수성의 강화를 장애인, 유소년, 고령자 스포츠지도 관련 자격 및 학과 그리고 무도, 태권도, 골프, 축구 등과 관련된 자격 및 학과의 등장은 대상 및 종목 특수성의 강화를 의미한다. 직무 특화, 대상 및 종목 특화의 강화가 복합한 근래의 상황은 체육직무, 체육계열학과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약화시킨다. 특수성과 개별성은 보편성과 공통성에 대립하고 전자의 강화는 후자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위와 같은 문제와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글은 체육계열학과의 상황과 연관된 이론과 실기의 실정 및 문제에 대한 성찰적 대응의 모색이다. 즉 체육분야에 포함되는 세부의 직(종업)무, (인구)대상, (경기)종목을 특화한 자격제도와 학과가 분화 확산됨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루는 이론 및 실기 즉 체육계열학과 교육과정이 혼잡해지면 1) 무엇이 문제이며, 2) 그 문제를 해결 혹은 개선하는 길은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문제의 뿌리와 줄기

근래의 체육계열학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화 확산,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혼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학문성의 맥락과 전문성의 맥락은 각각 현대 대학의 존립 근거이자 방식을 뒷받침하는 지식 내재주의와 공익 실용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대학학문으로서의 체육학을 지지하는 두 개의 기둥임은 분명하다.

### 1. 이론교육의 혼잡

체육계열학과 교육에서 이론과 실기 즉 교육과정이 혼잡한 상황의 뿌리에는 학과의 존재 이유와 방식에 관한 충실한 이해 노력의 부족이 자리한다. 대학의 학과는 말 그대로 학(문)을 추구하며 학(문)에 토대를 둔다. 학문의 조건은 헨리(Henry, 1964)가 체육을 대학학문으로 정초하고자 제시한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독자성 혹은 고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혹은 적합성, 지식의 체계성 등이다. 이는 1980년대 국내에서 체육학의 학문성(physical education as an academic discipline)을 다룬 다수 논의에서 재확인된다. 논자가 보기에 이들 논의에서 간과된 것이 있다. 학문성으로 번역해 온 academic discipline은 직역하면 ‘대학학문’이라는 점이다. 대학 학과는 학문을 추구하고 학문에 토대를 둔다고 할 때 그 학문은 대학(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학문이다. 인류 사회에 자리하는 혹은 난무하는 자칭 타칭의 잡다한 학 모두가 대학학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학학문들이 리케르트(Richert)의 구분에 따르면(윤명로 역, 1988) 문화과학(Kulturwissenschaft)과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 또는 보다 친숙하게는 (인)문학(文學, humanities)과 이(과)학(理學, science)을 기축으로 발생하고 발달해온 역사는 대학학문은 인간과 (자연, 사회)세계에 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영역 및 주제로 탐구하는 지적 활동 및 그 성과와 연결됨을 함축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문)을 붙인 모든 인간의 활동이 대학의 학과단위 연구 및 교육 체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사회의 변화 요구에 따라 문학과 이학 소위 순수 혹은 부모학문(pure/parent discipline)을 응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학문들도 등장한다. 교육학, 경영학, 공학 등이 그렇다. 체육학은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혹은 exercise & sport)을 대변하는 용어인 ‘체육’으로 지칭되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주제를 문학과 이학을 응용하거나 혹은 교육학이나 공학을 다시 응용하여 독자적 지식과 영역을 창출하고 구축하여 왔다.

이와 같은 학문 일반과 체육학의 구성 원리는 체육학의 분과학문이 성립하는 근거와 방식, 그리고 체육의 하위 분야를 특화한 학(문)과 (학)과의 존립 정당성에 관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체육학은 (인)문학 전통의 대학학문인 철학, 사학, 사회학, 심리학(심리학은 주제 및 방법상 이학적 측면도 상당하지만 사회과학대학과 같은 관행을 고려하여 이곳에 배치했음) 그리고 이(과)학 전통의 대학학문인 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및 의학 등을 응용하여 형성된 체육철학, 체육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을 기축으로 성장하여 왔다.

물론 20세기 초반 인간움직임 혹은 신체활동 영역과 그에 터하는 체육학은 교육 체제 위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1960~70년대 체육의 학문화운동 이래 (대학)학문성에 관한 진지한 모색 속에서 체계적 성숙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의 전반에서 체육학의 성립 및 성숙이 나름의 현실 요구에 응해야 했지만 대학학문 일반이 그러하였듯이 지식과 학문의 계열성을 반영하는 문학과 이학, 순수-부모와 응용-자녀 학문의 틀 속에서 정체를 구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상식적이었다. 체육학은 신체활동(exercise & sport)을 문-리(文-理)의 영역 학문들을 접목한 방식, 예를 들어 스포츠에 관한 철학(philosophy of sport), 운동에 관한 생리학(physiology of exercise)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이와 같은 접목들을 다시 종합하는 형식으로 성립 및 성숙의 길을 걸은 것이 그러하다.

한편 대학학과의 존립 근거로서 전문성(professions), 또는 실용성(practicality)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와 삶에서 널리 활용되는 공통 역량이나 전문 역량을 계발하는 일도 대학의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체육계열학도가 대학에서 등장하고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 근거맥락의 지지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덧붙여 신체활동이 근대 교육의 장에 편입될 수 있었던 삼육(三育)사상을 잘 보여주는 스펜서(Spencer, 1861)의 “교육: 지, 덕, 체(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에서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영역은 실용성을 반영하고 있음은 현대 대학체육 교육의 역사적 기축을 함축한다. 이렇듯 3차, 4차 산업혁명이 함축하듯이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분야의 형성 및 확대, 사회와 삶의 양상 변화는 학문성, 혹은 지식 내재주의 전통에 터하여 왔던 대학의 변화, 특히 전문 교육의 확대 강화를 가져온 것과 맥을 같이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학 체육계열학과에서 전문성의 추구 양상은 과도함이 광범하다. 체육 분야의 세부 직무인 건강운동관리, 스포츠경영, 세부 대상인 장애인, 유소년, 고령자의 스포츠, 세부 경기종목인 태권도, 축구, 골프 등을 특화하였다는 대학학과의 등장과 확산에는 최소한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된다.

세부 직무와 자격(학과)을 낳고 길러 온 대학학문인 체육학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건강운동관리학과나 스포츠경영학과는 관련 국가 또는 주요 민간 자격증 취득을 추구하면서 자격시험 과목을 교육과정의 이론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특수체육학과, 유아체육학과, 노인체육학과, 태권도학과, 골프학과, 축구학과 등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이론교과목은 과중해지고 체육학의 기축이 되는 이론교과목을 줄여 과중을 해소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은 전통의 체육계열학과 교육과정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현저하게 된다. 이러한 실상은 이들 학과들을 체육계열학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더 나아가 체육계열학과 교육의 방향 및 편제에 관한 근본적 물음을 발생시킨다. 오랜 역사 속에 축적된 체육(계열)학과의 보편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보편성이 약화되더라도 세부 직무, 대상, 종목의 특화를 강화할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인가 절충의 문제인가? 절충은 체육계열학과 대학학문성 요건과 직무전문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

직무 세분 특화 학과들은 앞에서 논했듯이 대학학문으로서의 정당화에서 취약함을 잠재하고 있다. 이 추구는 인간과 세계(사회, 자연)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주제 영역을 독자로 다루는 학문에 기반을 한 대학학문성의 추구, 혹은 대학학문성과 직무전문성의 병립으로 정당화되는 대학학과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인간운동’ 혹은 ‘신체활동’의 개념에 포섭되는 분과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체육계열학과에 속한다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 즉 교육과정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으며, 공통점조차 대다수 전통적 체육학과 교육과정의 기축과 거리가 있는데 체육(계열)학과라고 할 수 있는가? 직무전문성 세분 특화 학과들의 확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위의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된다. 그들 학과의 프로그램은 과거 4년제 대학 학과의 교육체제,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2년제 대학 학과, 심지어는 평생(사회)교육원과 같은 비정규과정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렇게 4년제 대학 학과의 교육체제와 2년제 대학 학과의 교육체제, 정규학위과정과 비정규과정 체제 간의 근본적 차이는 소멸된다. 대학 체육(계열)학과는 세부 직무 특화 대학학과의 신설 및 확산을 통해 정체혼란과 위상격하를 자초한다 할 것이다.

직무 세분 특화 학과들의 신설 및 확산을 현대 대학의 한 축인 공익 실용주의의 구현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더라도 변호사, 의사, 기술사, 교사 등이 대표되는 4년제 대학학위 전문자격 집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양성한 전문가는 합당한 대우와 안정된 취업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관련 학과를 만들어 역량을 제대로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여 체육관련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인정,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희망찬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스포츠경영관리사의 경우 그리고 오래 노력했지만 공인받지 못한 운동처방, 스포츠의학 전문가의 경우에 비추

어 직무 세분 특화 지향 학과의 밝은 미래 전망을 주저하는 것은 논자만의 노파심이기를 바란다.

## 2. 실기교육의 과중

대학 전공체육 교육의 한 축을 이룬다는 믿음에 터한 실기교육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먼저 ‘실기’의 의미를 살펴보자. 체육영역에서 실기는 (증진, 계발, 유희, 표현, 성취 등 혹은 건강, 교육, 여가, 예술, 생계 등을 위해 행하는 인간운동 또는 신체활동인) 체육에 적합한 기(技)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能)력, 체육을 실(實)행할 수 있는 기(技)능이다. 즉 스포츠(운동경기)가 대표 격인 신체 활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

대학 전공체육 학생에게 체육실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론)학문적 측면과 (실천)전문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론)학문적 측면에서 종목/운동 수행 능력이 필수적인가? 체육을 (이론)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그 능력이 필수라고 할 수는 없다. 종목/운동 수행 경험이 학문적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의 부족이나 부재가 (이론)학문적 학업의 불능으로 꼭 귀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체장애가 있는 우수한 체육학자가 있을 수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그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실험 장비의 활동에서 시간의 지연이나 보조의 요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논자의 견해가 황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논자가 소위 E-sports를 스포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적 견해를 담은 논문을 발표한 것을 놓고 E-sports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평이 있다. 온라인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관계자들, 그러한 분류에 근거가 된 게임 중독 연구자들은 게임(E-sports) 참가자일까, 참가자이어야 하는가? 아닐 수 있다. 온라인게임 참가자의 신경생리적, 사회문화적 행태는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분석은 온라인게임을 실제로 하지 않지만 과학적 방법을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실천)전문적 측면에서 실기는 필수다. 우리 분야의 전문직무는 뉴엘(1990)의 견해처럼 교육(지도), 건강(지도), 관리(지도)의 실천직무(practical professions)와 연구직무(research professions)로 구성된다(김홍식·민현주, 2010, 재인용). 체육학(kinesiology) 전공의 직무를 대상이나 종목으로 특화하더라도 그 직무의 유형은 실천과 연구에 포섭된다. (직업)운동선수((professional) athlete)도 전문직으로 보기도 하지만 4년제 대학학과에서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운동선수의 양성을 고등 전공체육의 학업 목표로 삼는 것은 국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혹여 운동선수의 양성이 4년제 대학학과의 목표라면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관은 최고의 체육학과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 분야의 (실천)전문직무는 대부분 지도(instruction)직무이다. 그러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해야 할 운동/종목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운동/종목의 수행 능력 습득을 지도하기 위해서 시범, 보조 등이 요구되고 이는 수행 능력 즉 실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입전형에 실기고사가 포함되고 4년간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실기 교과목으로 채워진다. 또는 종목지도 국가자격증 취득, 졸업실기고사와 같은 실기능력 확보 장치가 가동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대학 전공체육 교육에서 실기 교과목은 다다이선일 것이다.

그러나 실기 교과목을 필수로 중시하는 우리의 대학 전공체육 교육 전통은 매우 심각한 오해가 깔려있다. 운동/종목 수행 능력을 기르는 실기 교과목을 운동/종목 지도 능력을 기르는 실습 교과목보다 중시함으로써 정작 지도법, 관리법에 관한 실행 능력을 충분하게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지도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학

습자(고객)의 요구·상태·상황, 학습(지도, 관리)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analysing)하고 적합하게 설계(designing)하고 적절하게 실행(performing)할 수 있는 원리 이해와 실제 경험이 충분해야 한다. 사실 실기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그 능력이 바로 지도·관리 능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학 전공체육 교육의 실정은 실기 교과목의 비중이 지도·관리 방법을 체득하는 실습 교과목의 비중을 과하게 증가한다. 실정이 이런 것은 우리의 대학 전공체육 교육 풍토에 실기 훈련을 실무 연습이라 여기는 오해, 실기 수업 속에 지도·관리 능력 체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전문적이지 못한 사고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운동/종목 수행 능력과 관련된 실기가 전문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실습을 증가하는 것은 다다익선이라는 변명으로 모면하기 어려운 본말전도의 왜곡이다.

실기와 실습 간 오해의 과장은 실습 교과목의 부족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과장은 체육학 기축 이론교과목의 축소, 소멸로 이어진다. 지도법, 관리법 등과 관련된 교과목은 실습(practicum)의 성격이 주며, 그에 관한 내용 및 활동이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그와 같은 교과목은 수행 역량의 습득보다는 이론 원리의 이해에 집중한다. 이론교과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실습(중심)교과목의 이론교과목화는 교육과정 상 이론교과목의 비중을 과중하게 한다. 이는 전문직무 세분 특화와 맞물리면서 체육학의 기축인 이론교과목을 위협한다. 전문직무 특화의 관점에서 체육학 기축 이론교과목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논리에 의해 축소, 소멸된다. 더 나아가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보편성, 공통성 즉 정체성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단단한 대학학문성을 토대로 유력한 직무전문성을 개발하기보다는 전통적 실기 중시의 타성 속에서 직무세분화를 쫓음으로써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교육과정은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실기교과목의 타성적 옹호, 실습교과목의 누적된 부실은 대학 전공체육 교육의 한 축인 직무전문성에 성실하게 접근하는 길을 막고 있다. 동시에 대학학문성의 토대를 과도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만일 이 양상이 지속, 확대된다면 우리의 대학 전공체육 교육, 대학체육(계열)학과는 전 세계에 걸쳐 100년 동안 일구어온 대학학과로서의 정당성, 학문성과 전문성의 조화가 나날이 분(分)[산(散)상(喪)]실(失)되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겠다.

### Ⅲ. 문제의 해결과 과제

발제 ‘대학 전공체육 교육에서 이론과 실기의 역할’에서 전공체육 교육은 체육계열학과의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이론과 실기는 (여기서 실기는 실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용해온 의미라고 할 때) 교육(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발제는 대학 체육계열학과 교육(과정)이 담당해야 하는바, 추구해야 하는 바에 대한 근본적 검토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검토는 대학학문성과 직무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며 확립해온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전통 및 위상을 고려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양축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지향 및 편성은 대학학문으로서 체육학의 체계적 학업, 체육 전문직무 역량의 개발에 대한 기여를 준거로 삼는다.

#### 1. 이론교육의 계열성 재정립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교육 중 이론영역은 우선 대학학문으로서 체육학의 정체를 담지(擔持)해야 한다. 따라서 체육(physical activity, human movement, exercise & sport)에 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의 역사 축적인 체육학(kinesiology)의 주제, 방법, 체계에 관한 이해 및 탐구 역량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어야 한다. 또한 이론교과목은 직무전문성과 관련을 맺는다. 신체활동을 기반 혹은 매개로 하는 지도, 관리의 실천 직무는 태도자질(disposition), 지식기술(knowledge & skills), 수행관리(performance)에 관한 역량을 요구한다. 이

역량은 체육/신체활동의 원리·유형·가치·효과, 신체활동 참가자의 성질·요구, 신체활동 환경의 성질·조건 등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실천전문가는 무엇을(what), 누구에게(for whom),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떻게(how), 왜(why)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확한 효율적 실행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체육계열학과 교육의 이론 영역은 다음과 같이 중층구조가 된다.

- 학문토대이론: 순수, 부모학문의 이론 및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신체활동을 분석, 이해하는 기반 이론
  - 신체활동의 과학적 이론: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 이론
  - 신체활동의 인문적 이해: 경험적(통시적, 공시적), 사변적(초월적)
  
- 전문실천원론: 응용이론, 순수이론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지만 순수이론 지향 대학학과의 활동 및 성과와 구별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의 실천 원론
  - 실천적응의 근간적 이론: 교육지도(예: 스포츠교육학)·운동관리(예: 스포츠의학)·관리경영(예: 스포츠경영학)

이상과 같은 체육학의 이론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 원리와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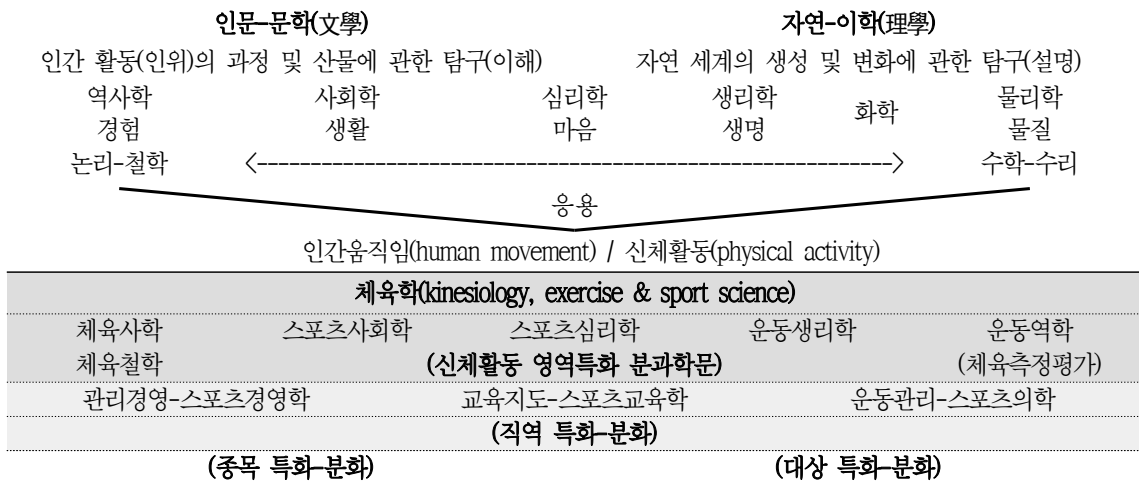


그림 1. 체육학의 구성 원리 및 구조

## 2. 실기교육에서 실습교육으로

실기를 포함하는 실습영역의 역할은 이론영역처럼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론영역은 순수/부모 학문 환원이라는 근원적 불안을 안고 있다. 체육학 지식의 원천성 주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체육의 대학문화 노력은 지식을 이론적(theoretical) 지식과 실천적(practical) 지식, 표상적(representative) 지식과 절차적(procedural) 지식, 명제적 지식(knowing That)과 방법적 지식(knowing How To (do)) 등으로 분류하는 지식이론을 차용하여 체육학 고유의 지식을 신체행위지식(physical action knowledge, Ross, 2001), 체육교사지식, 스포츠 코치지식 등으로 정당화하는 식의 접근을 시도하여왔다. 즉 운동실행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능력은 이론·명제 형식이 아니라 실천·행위 형식으로 표명,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이론만으로는 파악하고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독특한 ‘예술적 앎’(artful knowing, Gim, 1989), ‘체육적 앎’(오정석, 1994)이라고 견해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지식 원천성, 고유성 논제는 사범/교육대학 학과를 비롯한 실천관련 대학학과들 모두에 연관된다.

이 영역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운동경기 종목의 실기에 한정하기보다는 이 실기능력이 요소 혹은 부분인 체육 전문직무의 실천역량으로 확장하여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경기 지도의 경우 실기능력은 시범,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 필요하다. 건강운동관리 지도에서도 시범, 보조 등을 위해서는 해당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경기)종목 및 동작의 수행능력/실기능력은 지도능력에 종속적이다. 운동선수 진로, 순수 운동참여가 목적일 때만 운동종목 실기능력은 독립적 의미를 가진다. 여하튼 실기능력과 지도능력을 포괄하는 실천역량의 강화는 실제로 해보는 학습 즉 실습이 꼭 필요하다. 명제적 지식 형식인 과학적 설명이 방법적 지식 형식인 실제의 행위 간의 관계는 완전 단절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습득과 발휘에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지만 그 상호작용, 더욱이 상호 간의 전환은 기대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 관리 내용과 방법을 익히는 실습교과목, 이를 뒷받침하는 실기능력의 습득이 독립 혹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전통적 실기교과목이 성립하게 된다.

실습(실기)교과목의 편성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기교과목, 운동(경기)종목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기초 혹은 동작전이가 넓은 종목, (대중 참여로 인해)지도 요구가 많은 종목, 실기교과목에 할당 가능한 학점/시수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각 종목의 실기능력을 기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한 학기 주당 2시간 총 30시간은 해당 종목을 지도할 정도의 수행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논자는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실기고사 심사에 참여하면서 응시자 중 해당 종목의 참여 및 학습경험이 한 학기의 수업뿐인 체육계열학과 재학생, 졸업생을 다수 만난 적이 있다. 한편 건강운동관리, 스포츠경영관리와 같은 직무는 종목실기 수행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전자의 전문가는 건강운동 상태나 능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나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운동 계획이나 실행 방식을 마련해주며 그 계획의 실천을 확인하고 이끌어서 목표로 하는 상태나 능력에 이르도록 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종목실기보다는 직무의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자재의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종목 실기교과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전통적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대략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종목 실기를 단기의 정과교육에서 지속적 과외교육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는 다중(多種)단기(短期)식 현행 종목실기 교육의 시간부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종목실기 수행능력이 꼭 필요하지 않는 직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도 종목실기 교육을 과하게 부과하는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현행의 정과 실기교과목 체제를 유지하되 대학 혹은 학과별도 경기종목을 선택 특화하는 방식이다. 물론 종목 선정의 어려움은 남는다. 셋째, 실기교과목의 전통적 편성 비중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무에서 요구되는 지도, 관리 방법의 적용 및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은 과감하게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직무관련 자격 조건으로서 해당 수행역량의 수준과 (전문)대학원 교육의 수준이 일관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종목)실기교육의 필요를 지지하고 포괄하는 실습(중심)교육은 우리 대학 체육계열학과 존립의 양축인 대학학문성과 직무전문성을 관류하는 근본적인 논제의 중심에 있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학문성 차원에서 순수/부모학문 환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론과 이론의 통합, 이론과 실기/실제의 통합에 관한 노력은 결국 실습교육의 확립 및 강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이론과 이론의 통합은 근본적으로 환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독자의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학계와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는 교육학계의 노력을 생각해 보자. 교육계열학과와 존립, 예를 들어 국문학과가 아닌 국어교육학과, 물리학과가 아닌

물리교육학과의 존립은 국어교육자, 물리교육자의 지식이 국문학자, 물리학자의 지식과 구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을 때 정당화된다. 교육자 고유의 지식, 그것은 바로 명제의 형식으로 언명될 수 없는 차원의, 형식의 지식을 정립하는 일이다. 교육학계에서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의 간접전달(indirect communication), 오크쇼트(Oakeshott)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등에 관한 교육인식론적 탐색을 이어온 것은 교육자의 전문성을 발판으로 하는 교육 연구 및 교사 양성 학과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다.

의사양성에서의 강력한 실습교육, 인턴십 프로그램도 그러하다. 탁월한 의사의 자질은 풍부한 의학지식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수술이나 시술을 실제로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는 솜씨를 포함한다. 그 솜씨는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 시술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습득, 연마되기 때문이다. 교사와 의사의 전문성이 그러하듯이 체육 실천가의 전문성은 이론지식을 실제 행위로 통합하는 실습교육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그 전문성은 동시에 지식의 독자성을 확인시킨다. 우리 체육학계에서 이론과 이론, 이론과 실기/실제의 통합에 관한 문제 제기(송형석, 2005; 임태성·박재우, 2012)가 반복된 바탕 근원에 실습교육의 불충분함, 실천 전문성의 확립 및 강화 노력의 부족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조로 미국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체육학(과)연합회(American Kinesiology Association)에서는 체육학과 학부교육의 핵심요소(The undergraduate core in kinesiology)의 골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건강, 안녕, 삶의 질에서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in health, wellness, and quality of life)
- 신체활동의 과학적 기초(scientific foundations of physical activity)
- 신체활동의 문화적, 역사적 및 철학적 차원(cultural,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dimensions of physical activity)
- 신체활동의 실천(the practice of physical activity) (김홍식, 2017, 재인용)

이상과 같이 우리의 대학체육 교육에서 이론과 실기 영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소지, 그 문제의 해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책에 관해 논구해 보았다. 이론영역에 관한 인식을 재차 확인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학학문으로서 체육(계열)학과의 정체성, 통합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반박이 떠오를 수도 있겠다. 즉 체육학의 연구와 실천의 주제인 인간움직임 또는 신체활동 영역을 둘러싼 새로운 양상 및 요구에 따라 지도와 관련된, 종목과 관련된 전문직무의 개발, 정립에 소홀함은 대학체육 교육의 발전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반박 주장은 체육학의 기축이 되는 교과목을 축소, 폐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단위(학과)는 왜 체육계열학과이고자 하는지, 체육계열학과의 아닌 별개의 학과로 독립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소위 E-sports학과는 왜 체육계열이어야 하는가? 그 학과의 학생들은 운동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체육사, 체육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부는 어떤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독자들은 위와 같은 물음이 소위 E-sports학과에만 해당하지 않음을 즉 직무특화, 종목특화의 길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주장이나 실행에도 해당함을 간과했을 것이다. 스포츠, 운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교육과정 상의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과중하다면 동일 계열학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할 것이다. 이 같은 논자의 재반박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대학교육에 관해 분석적, 성찰적 연구를 축적한 이성호 전 연세대 교수의 때가 한참 지난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전공학과나 분야 내에서도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전공을 두게 된다. 그것은 그 분야의 새로운 지식들이 그만큼 풍부해졌으며 다양해졌고, 커다란 범주의 전공분야 속에 통합되어 그대로 남아 있기가 어려울 때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자꾸 성장하면, 중국에는 새로운 전공학과로 독립하여 분가하게 된다...그러나 전공학과의 팽창과 분화가 반드시 지식의 발전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교수들의 끼리끼리의 학문적 흥미와 관심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과는 신설되고 세분되는 경우도 있다...학과의 계속되는 분화는 학과 교수들의 관리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있[하는] 태도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이다...학과의 집합적 명성을 높이고 그 가능성을 고양함으로써 더불어 자신들의 명성도 올리려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학과는 좁은 범위의 극히 이기적인 관심에 뜻을 모으게 하며, 이것은 학과의 분화와 학과간의 고립을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이성호, 1984: 120-121).

물론 그의 논구는 대학교육의 편제 전체를 시야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개별 전공학과에도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의 견해는 우리 체육계열학과의 실정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 IV. 맺음

대학 전공체육 교육 즉 체육계열학과 교육과정을 이루는 이론과 실기/실제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육학이 독자 대학학문이며 체육분야의 지도, 관리 직무가 전문직임을 정초 확립하는 것과 불가분이며 따라서 중핵성과 계열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래 꾸준히 확대되어 온 직무, 대상, 종목 특화의 학과 세분화는 대학 체육계열학과 교육과정의 중핵성, 계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반성과 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한 미국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수 있다. 대학 전공체육 교육의 분산은 독자 대학학문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근래 미국 체육학(과)의 선도자들이 연달아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할 것이다. 또한 의미 협소한 실기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실습중심의 교과목이 이론교과목으로 탈바꿈하거나 실기교과목이 실습교과목으로 오해함으로 인해 이론교육의 혼잡, 실습교육의 부실을 가져온 그간의 풍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 직무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동시에 독자 지식론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복(1994). 대학 체육교육의 문제와 과제. **대학교육**, 70, 106-111.
- 김경동(1983).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대학교육**, 2, 35-39.
- 김오중(1956). 대학체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체육학회지**, 2, 28-34.
- 김홍식(2017). 체육전문역량의 개념 구조. **스포츠사이언스**, 34(2), 195-206.
- 김홍식, 민현주(2010). 대학 체육계열학과 재편을 위한 논제 검토. **한국체육학회지**, 49(3), 45-55.
- 선병기(1956). 체육학의 구성을 위하여. **한국체육학회지**, 2, 2-6.
- 송형석(2005). 체육학 분화 및 통합 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4(2), 51-61.
- 오정석(1994). **체육적 삶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 윤명로 역(1988) / H. Richert. **자연과학과 문화과학(Kulturwissenschaft und Naturwissenschaft)**. 서울: 삼성미술

문화재단 출판부.

이성호(1984). 대학 전공교육의 전문화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연구*, 4, 107-149.

이성호(2016).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쟁점과 교훈. *한국교육*, 43(4), 63-80.

임태성, 박재우(2012). 체육계열학과의 전문성 제고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1(1), 283-299.

정종원, 유기웅(2015). 교양기초교육 영역분류에 따른 국내 대학의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5-27.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6).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American Kinesiology Association. *AKA statement regarding the Undergraduate Core Curriculum in Kinesiology*.  
<https://americankinesiology.org/SubPages/Pages/Statement%20on%20Undergraduate%20Core>.

Henry, F.M. (1964). Physical education: An academic discipline. *Journa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35(7), 32-33.

Gim, Jeong-Myung. (1989). *Physical education as "artful know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Ohio State University.

Spencer H. (1861, 1911). *Essays on Education & Kindred Subjects*. Everyman's Library.

Ross, S. (2001). *Physical education reconceptualize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d, LTD.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

\* 논문접수일자 : 2021년 11월 09일

\* 논문심사일자 : 2021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 2021년 12월 02일